

배포일시	2021년 4월 23일	보도시점	배포 직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나노브릭 김현석 상무 / 02-6959-6440 / ir@nanobrick.co.kr		

나노브릭, 첨단보안패키지 '엠팩(M-Pac)' 사업 확대...시장 공략 속도

- 첨단 보안소재(MTX)를 적용한 보안패키지 사업 확대·강화
- 독보적 보안소재를 패키지에 직접 인쇄 적용하여 가품 및 복제 원천 차단

나노브릭이 첨단 보안소재를 적용한 제품군을 앞세워 보안패키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첨단 나노신소재 전문기업 나노브릭(KOSDAQ: 286750)은 '보안라벨 엠태그(M-Tag)'에 이어 '보안패키지 엠팩(M-Pac)' 제품군을 확대해 위조방지·정품인증 사업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엠팩(M-Pac)은 기존 정품인증 라벨과 달리 라벨 부착공정이 필요 없으며, 패키지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안성과 생산원가 경쟁력이 모두 향상된 보안제품이다. 필름, 알루미늄 호일 등의 연포장재 및 종이박스 패키지에도 직접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화장품 마스크팩뿐 아니라 의약품, 식음료품, 전자부품 등 대량생산 소비재 제품의 위조방지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위조방지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노브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화에 성공한 첨단보안소재인 자기색가변소재를 기반으로 위조방지 사업에 진출했다. 1세대 제품군인 다기능 보안라벨 엠태그(M-Tag)는 기존 정품인증 수단인 홀로그램, QR코드 등을 대체해왔다. 2세대 제품군인 엠팩(M-Pac)은 고속 롤투롤(Roll-to-Roll) 인쇄라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소재를 대폭 개선하여 위조방지 기능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제품의 보안패키지에 적용되고 있다.

나노브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비대면 교역의 증대로 가품피해가 증대하자, 양산 제품화와의 거리가 먼 실험실 수준의 기술들이나 쉽게 복제되는 신기한 기술들이 위조방지 솔루션으로 제안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엠태그 및 엠팩은 가품 출현 시 피해가 큰 대형 업체들이 다양한 위조방지·정품인증 솔루션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종선택하는 보안솔루션으로, 최근 3년 간 화장품 마스크팩에만 12억 장 이상 적용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노브릭은 중국조폐잉크공사와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내 정품 제품들에 자사의 보안소재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글로벌 보안시장의 대표적 선도기업인 스위스 시크파사와 국내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시그파의 공식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자사의 독보적 위조방지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형 브랜드업체 및 글로벌 보안기업을 중심으로 보안사업을 확대해 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나노브릭은 2019년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노 플랫폼을 토대로 최고의 기술평가(AA, AA)를 받으며 기술특례 상장한 바 있다. △위조방지·정품인증 보안사업 △분자진단추출시약 바이오 사업 △기능용 디스플레이 소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되며 2007년부터 구축한 독자적 기술 포트폴리오의 사업화 변곡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



사진1. 나노브릭의 보안패키지 엠팩(M-Pac) 제품사진



사진2. 나노브릭의 보안패키지 엠팩(M-Pac) 제품사진